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플로럴패턴 분석 및 패션트렌드 반영 연구

- 2012 S/S ~ 2017 S/S를 중심으로 -

이명숙⁺ · 박순임^{*}

건국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건국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겸임교수^{*}

A Research on Floral Pattern Analysis and Fashion Trend Application Appearing in Fashion Collections

- Focusing on the 2012 S/S ~ 2017 S/S Seasons -

Myung-Soog Rhee⁺ · Soon-Im Park^{*}

Prof., Dept of Fashion Design, Konkuk University⁺

Adjunct Prof., Dept of Fashion Design, Konkuk University^{*}

(2017. 3. 15 접수; 2017. 6. 2 수정; 2017. 6. 8 채택)

Abstract

Throughout the rich human history, patterns have developed as a symbolic sign and representation of the inner psychology of human beings. Thanks to its intrinsic beauty and emotional richness, the flower has been utilized as a one of the major materials for patterns used in everyday life and art. As a product of nature, floral patterns have played a key role in fashion trends as a Surface Design with other elements of fashion design such as silhouette, fabric and color. Therefore, this research sought to identify the trends of floral patterns of women's garments that appeared at the four major global fashion collections (Paris, Milano, New York and London), and to analyze how importantly the fashion magazines' prediction were applied in the actual collections. Furthermore, the research aimed to suggest possible methods to utilize trend magazines for collections in the future. As a main research method, the authors investigated professional fashion literature and internet websites to extract a total of 4,681 items presented by sixteen designers who participated in the four major global fashion collections each time during the period of the 2012 S/S~2017 S/S seasons. First View Korea and Samsung Design Net were used as major sources for the pattern extraction and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floral patterns account for 31%(1,454 items) among the total number of patterns appearing in the four major global fashion collections(4,681 items). For the reflection ratio, Samsung Design Net recorded a 4% higher ratio(52%) than First View Korea(48%). Based on the data and analysis of this research, the authors expect that floral patterns in various forms will be continuously presented in fashion collections, and conclude that utilizing fashion magazines is highly useful due to their appropriate predictions.

Key Words: Fashion collection(패션컬렉션), Floral pattern(플로럴패턴), Fashion trend(패션트렌드),
Graphic trend(그래픽트렌드), Textile design(텍스타일디자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문양(Pattern)은 인간의 심리적 내면 표출과 장식하려는 욕구 및 상징적 표식으로 인류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발전하였다. 물체 표면에 표출된 다양한 문양의 양식과 소재는 지리적, 시공간적인 측면에서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자연의 산물인 꽃은 인간에게 아름다운 미와 정신적 풍요를 느끼게 하여 예술과 생활 전반에 문양의 중요한 소재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플로럴패턴(Floral Pattern)은 텍스타일디자인(Textile Design)으로 패션디자인의 구성요소인 실루엣(Silhouette), 소재(Fabric), 컬러(Color)와 함께 패션트렌드에 비중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복식, 액세서리, 인테리어, 생활용품 등 우리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복식에서는 여성복에 가장 많이 사용 된다.

패션디자인에 있어 패션트렌드의 정보 분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패션컬렉션의 S/S시즌은 플로럴패턴의 사용 빈도가 높아 유행에 민감하므로 패션트렌드의 그래픽 트렌드정보는 더욱 필요하다. 플로럴패턴으로 제작된 패션컬렉션과 패션트렌드 정보지의 플로럴패턴 수용빈도와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패션컬렉션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현재까지 트렌드를 연구한 선행연구자는 패션트렌드의 소재 분석과 수용에 대해 연구한 윤재심(윤재심, 2012)이 있는데 그는 패션 소재 트렌드의 실질적인 활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연구하였고, 이수철, 김소현(2013)은 '플로럴 패턴디자인을 활용한 여성 어패럴 사례 연구'에서 플로럴패턴 디자인을 활용한 세계4대 컬렉션을 분석했다. '국내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트렌드 분석'을 연구한 박미애, 조영아(2004)와 '패션정보지의 디자인트렌드 예측과 소비자의 수용도에 관한 연구'를 한 이인성(2003)은 트렌드의 컬렉션 수용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패션 트렌드에서 보여지는 소재·색채 등의 수용현황 분석을 통하여 그 활용 빈도뿐만 제시하였으며, 트렌드 정보지에서 제안하는 플로럴패턴의 수용 빈도에 대한 분

석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 트렌드분석에 대한 연구가 2013년까지 이루어지고 최근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플로럴패턴의 표현 양식과 패션트렌드에서 제안된 플로럴패턴의 활용 빈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트렌드정보의 플로럴문양 예측이 세계 4대 컬렉션(파리·밀라노·뉴욕·런던)의 S/S시즌에 어떻게 반영되어 표현되었으며 어느 정도 비중을 보이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앞으로의 컬렉션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텍스타일 디자인도 소재와 실루엣 등이 유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 정치적 영향을 받으며 인간들의 삶에 반영되어 나타나며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계 4대 컬렉션(파리·밀라노·뉴욕·런던) S/S 시즌의 여성복에 나타난 플로럴패턴이 패션트렌드 정보지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조사하여 그 반영비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플로럴패턴은 패션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패턴 중에서 지속적으로 애용하는 패턴이므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S/S 시즌 컬렉션의 여성복 중에서 플로럴패턴을 많이 사용한 브랜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S/S시즌의 여성복에 한정된 이유는 계절적으로 봄·여름은 얇은 소재로 프린팅(Printing)기법이 많아 가을·겨울인 F/W시즌에 주로 사용하는 우븐(Woven)보다 플로럴패턴의 사용이 현저하게 많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세계 4대 컬렉션(파리·밀라노·뉴욕·런던) S/S시즌에 거의 매년 참석한 16개의 브랜드로 제한하여 패션 전문서적과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여 총 4,681개의 작품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논문과 전문서적, 패션컬렉션 잡지(① gap press, 2011~2016, ② IN FASHION, 2011~2016, ③ FASHION SHOW, 2012~2016, 정은도서) 등의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 개념과 사진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패션트렌드는 퍼스트뷰코리아(Firstviewkorea)(www.firstviewkorea.com), 보그(Vogue)(www.vogue.co.kr),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렌드센터(Korea Color & FashionTrendCenter), 어패럴뉴스(www.appnews.co.kr), 삼성디자인넷(Samsungdesign.net)(www.samsungdesign.net)등 전문 패션트렌드 정보지에 나타난 플로럴패턴을 조사·분석을 하였으나, 논문에 제시한 사진 자료는 퍼스트뷰코리아(www.firstviewkorea.com), 삼성디자인넷(www.samsungdesign.net)의 2012S/S~2017S/S 시즌의 그래픽 트렌드에서 추출한 것이다.

셋째 브랜드 선정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4대 컬렉션에 매년 S/S 컬렉션에 모두 참여한 브랜드들 중에서 플로럴패턴을 비교적 많이 사용한 13개의 브랜드를 선정하고, 이차적으로 5년 동안 참석하며 매 시즌마다 플로럴패턴을 많이 사용한 브랜드 3개를 추가로 포함하여 총 16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논문에서 사용된 사진은 퍼스트뷰코리아, 보그, 삼성디자인넷과 패션컬렉션잡지(① gap press, 2011~2016, ② IN FASHION, 2011~2016, ③ FASHION SHOW, 2012~2016, 정은도서)의 파리·밀라노·뉴욕·런던 세계 4대 컬렉션을 참고하였으며, 분석대상은 프린트, 날염, 직조, 자수, 레이저컷팅, 레이스 등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된 플로럴패턴을 모두 포함했으나 레이스는 문양이 뚜렷하게 나타난 극히 일부분만 포함했다

II. 이론적 배경

1. 플로럴패턴

플로럴패턴은 꽃문양의 총칭으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문양의 소재이다. 꽃의 아름답고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형태가 지닌 조형미는 인간들에게 정신적, 심리적으로 풍부하고 행복한 감성을 전달하여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적 특징과 민족고유의 특성을 담아 가장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플로럴패턴에 표현된 꽃들은 정도는 다르지만 실제 모양보다 추상화 되어 있으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프린트 된 것은 컨버세이셔널(Conversational)로 분류하며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 달리 표현되어져 왔고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그 지역만이 가지는 개성적인 장식의욕과 종교적 양식까지 잘 나타내고 있다(남은숙, 1982).

플로럴 패턴디자인의 표현방법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 형태는 직물무늬로 단순화된 도안적인 무늬의 형태로 시작했으며 이때는 주술적인 감정표현까지 포함하고 있었다(김소현, 2013).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플로럴 패턴은 르네상스 시대인 16세기 이후부터 활발하게 표현되어지기 시작했고 17세기 바로크 양식의 꽃무늬는 중간 크기의 꽃이 많이 표현되고 자수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꽃을 중심으로 새, 산호알, 비둘기 등이 같이 응용되어 사용되어졌다(윤정, 2003).

18세기는 직물공업을 주로 한 산업발전의 힘으로 화려하고 여성적이며 섬세한 문양이 주를 이뤘고 전원풍경, 꽃다발, 야생화, 들장미 넝쿨, 화조화 등의 패턴이 나타났다. 19세기는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미술공예운동이 널리 퍼졌으며 대표적인 작가인 윌리엄모리스(William Morris)는 타피스트리, 문직직물, 가구용 직물 등 실용예술을 대중에게 보급하여 대중들이 일상생활에서 미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세기 이전에는 장미, 투올립, 백합 같은 중간 크기 이상의 꽃과 꽃잎의 풍부함을 가진 꽃들이 소재로 쓰였으며 20세기 이후에는 작고 큰 크기의 다양한 이국적인 꽃들이 체크, 스트라이프, 도트 등 다른 패턴들과 함께 쓰였다(윤정, 2003).

플로럴패턴은 꽃의 형태와 미묘한 색채, 줄기와 꽃잎의 형태와 선의 유기적인 곡선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종류의 꽃을 복합적으로 재구성하고, 꽃의 크기와 배열에 따라 변화를 주어 무궁무진하게 표현되어 왔다. 또 기하학패턴, 추상패턴, 인공물패턴 등과 복합하여 기법과 형식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자유롭게 창출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이며 동일한 꽃 모티브라도 독창적인 디자이너의 상상력에 의해 독특한 디자인으로 나타난다.

꽃과 식물은 인간에게 미적인 요소를 충족시켜 주고, 예술과 디자인에 있어서 미적 요소를 한층 더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자연

의 질서와 생동감은 영원한 예술의 대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소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폴 뷔용, 윤철규역, 1994).

2. 패션 트렌드

트렌드란 독창성이나 저작권을 신경 쓰지 않고 남을 따라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 물결과 같은 것이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적 연속성을 기본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변화현상이며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정승영, 2009). 최근에는 메가트렌드(megatrends)와 빅데이터(Big Data)란 범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패션트렌드는 이러한 메가트렌드가 패션에 반영된 추세나 경향으로 여러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일시적인 유행으로 볼 수 있는 패션의 새로운 경향을 말한다.

패션 트렌드의 사전적인 의미는 양식, 습관, 형식, 관습, 유행 등의 다양한 의미를 뜻하며 만드는 일, 행위, 행동 등을 뜻한다. 이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는 단순히 복식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복식이 유행했던 배경과 그 현상까지 의미하며, 이를 통해서 그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의 흐름까지 읽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패션 트렌드는 패션 컬렉션을 통해 시즌 별로 해마다 다양한 트렌드 키워드를 양산하고 있다(조양현, 2017). 패션과 트렌드의 의미를 종합하여 패션 트렌드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패션의 경향과 트렌드가 반영된 패션 양식이나 생활 및 사회현상이다(최유리, 200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션트렌드 예측 기관은 퍼스트뷰코리아(Firstviewkorea)와 삼성디자인넷(Samsungdesign.Net)이 있다. 퍼스트뷰코리아(Firstviewkorea)는 2000년부터 실시간 패션전문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며 현재는 패션은 물론 산업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플래닝 전문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Firstview.com의 한국라이선스 파트너인 퍼스트뷰코리아는 해외 컬렉션 사진자료는 물론 국내외 마켓 동향, 소비자분석, 트렌드정보 등 국내 패션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2017,6,3검색).

삼성디자인넷(Samsungdesign.Net)은 1996년, 패션 정보 시스템을 갖춘 삼성패션연구소를 오픈했고, 이는 '삼성디자인넷'의 전신 역할을 하며, 90년대 중후반 패션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왔다.

2001년 패션-디자인 포털 '삼성디자인넷'으로 상호를 바꾼 삼성디자인넷은 패션 최신 뉴스에서부터 다양한 트렌드정보 그리고 패션 히스토리 등 다양한 메뉴들과 콘텐츠들을 담고 있으며 이 중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여성컬렉션(Collection for Women), 이슈리포트(Issue Report), 여성트렌드(Trend for Women), 스트리트착장 정보(Style on Street), 패션시장 분석 보고서(Market Report)이다.

'삼성디자인넷'은 패션소비자, 마켓, 유통, 예술, 디자인 등 패션-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최신 정보들을 끊임없이 조사, 연구하며, 매일 업데이트되는 신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2017, 5월 27검색).

패션트렌드 예측 기관을 통해 새롭게 제시된 그래픽 트렌드가 4대 세계컬렉션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패션 유행이 문양이라는 트렌드 특성에 의해 새롭게 패션 이미지 연출로 창조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 패션에서 보여지는 문양은 패션트렌드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시각적인 측면으로 유행을 선도하며 창조적 역할로 평가되고 있다(윤재심, 2012).

Ⅲ. 트렌드 정보사에서 제안한 플로럴패턴 트렌드

1. 플로럴 패턴의 트렌드

트렌드 정보사는 퍼스트뷰코리아(Firstviewkorea), 한국컬러앤드패션트렌드(Korea Color & Fashion Trend), 삼성디자인넷(Samsungdesign.Net) 등 전문 패션트렌드 정보지에 나타난 플로럴패턴을 조사·분석을 하였으나, 논문에 제시한 그림 자료는 퍼스트뷰코리아(www.firstviewkorea.com), 삼성디자인넷(www.samsungdesign.net)의 2012S/S~

〈표 1〉 2012 S/S 플로럴 트렌드

퍼스트뷰코리아		삼성디자인넷	
			
〈그림 1〉 플라워트렌드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 플라워트렌드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 플라워트렌드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4〉 플라워트렌드 (출처: www.samsungdesign.net)

〈표 2〉 2013 S/S 플로럴 트렌드

퍼스트뷰코리아		삼성디자인넷	
			
〈그림 5〉 플로럴트렌드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6〉 플로럴트렌드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7〉 플로럴트렌드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8〉 플로럴트렌드 (출처: www.samsungdesign.net)

2017S/S시즌의 그래픽 트렌드에서 추출하여 플로럴패턴을 제시하였으며 그림 설명은 트렌드 정보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012 S/S 퍼스트뷰코리아에서는 플로럴패턴은 모래나 화강암의 표면 느낌, 디지털프린팅, 스크래치 기법을 사용(그림 1), 라인드로잉, 컬러링이 없는 여백의 모티브, 다크와 님톤의 여백이 거의 없는 이국적인 꽃 모티브(그림 2) 등을 제안하였고 삼성디자인넷에서는 작은 플로럴과 마이크로도트, 심플한 그래픽 프린트(그림 3), 이국적인 정글의 새와 꽃, 나비, 야자 식물을 과감하게 표현한 패턴(그림 4)을 제안하였다.

2013 S/S 퍼스트뷰코리아에서 제안한 플로럴패턴은 정글에서 영향을 받은 이국적인 식물 모티브, 큰 사이즈의 플로럴 프린트(그림 5), 원시 부족의 동굴벽화에서 영감을 받은 그래픽과 러프한 터치의 섬세한 선은 핸드드로잉으로 표현(그림 6)한 것이며, 삼성디자인넷에서는 강렬한 디지털 프린트(그림 7), 환상적인 테크닉이 돋보이는 정글과 뾰뾰한 식물을 그린 월페이퍼 등의 패턴(그림 8)을 제안하였다.

2014 S/S 퍼스트뷰코리아에서 제시한 플로럴패턴은 지오메트릭 패턴, 믹스매치, 그래픽 프린트, 과감한 크기, 바탕색과의 강한 대비효과, 스트라이프 플로럴패턴(그림 9), 윌리엄모리스 스타일의 프린트, 강렬한 프라이머리 색상으로 본연의 색이 아닌 색을 입힌 패턴(그림 10)을 삼성디자인넷에서는, 비비드 트로피컬 모티브, 사이키델릭 디지털 프린트, 50년대의 우아한 리조트 무드(그림 11),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레이스에 대한 선호가 지속된다고 제안했으며, 메탈사, 스팅글, 시퀸, 진주 장식 등의 패턴(그림 12)을 제안하였다.

2015 S/S 퍼스트뷰코리아에서 제시한 플로럴패턴은 섬세한 라인을 중심으로 60년대 풍의 클래식한 플라워, 큰 사이즈의 모티브와 여백을 살린 구성, 보더를 따라 전개되는 프린트(그림 13), 드라이 브러쉬나 핸드페인팅의 플라워는 투톤 컬러, 올오버 구성, 추상적인 프린트의 효과(그림 14) 등이 특징이다.

삼성디자인넷에서는 손으로 그린 듯한 낙서 같은 플로럴 프린트, 연필이나 펜으로 그린 개성

〈표 3〉 2014 S/S 플로럴 트렌드

퍼스트뷰코리아		삼성디자인넷	
			
〈그림 9〉 플로럴트렌드 (출처:www.firstviewkorea.com)	〈그림 10〉 플로럴트렌드 (출처:www.firstviewkorea.com)	〈그림 11〉 플로럴트렌드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12〉 플로럴트렌드 (출처:www.samsungdesign.net)

〈표 4〉 2015 S/S 플로럴 트렌드

퍼스트뷰코리아		삼성디자인넷	
			
〈그림 13〉 플로럴트렌드 (출처:www.firstviewkorea.com)	〈그림 14〉 플로럴트렌드 (출처:www.firstviewkorea.com)	〈그림 15〉 플로럴트렌드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16〉 플로럴트렌드 (출처:www.samsungdesign.net)

〈표 5〉 2016 S/S 플로럴 트렌드

퍼스트뷰코리아		삼성디자인넷	
			
〈그림 17〉 플로럴트렌드 (출처:www.firstviewkorea.com)	〈그림 18〉 플로럴트렌드 (출처:www.firstviewkorea.com)	〈그림 19〉 플로럴트렌드 (출처:www.samsungdesign.net)	〈그림 20〉 플로럴트렌드 (출처:www.samsungdesign.net)

있는 일러스트 감성을 제안, 컬러 블로킹과 과감한 붓 터치, 추상적 플로럴, 섬세하게 그린 줄기와 잎(그림 15), 단순화한 히비스쿠스(Hibiscus) 꽃과 큰 잎이 특징인 하와이 풍의 프린트, 다채로운 색상으로 새롭게 제안되었고 어두운 바탕에 정교한 일러스트를 넣은 스타일(그림 16)도 있다.

2016 S/S 퍼스트뷰코리아에서 제시한 플로럴 패턴은 오리엔탈무드의 간결하고 섬세한 선에 부드러운 색상을 가미한 플라워 프린트가 새 또

는 나비 등의 모티브들과 복합적인 믹스하여 제안, 워터컬러 기법에 여백을 살린 구성이 특징적으로 서정적인 분위기 연출을 시도(그림 17), 단순화되거나 또는 사실적으로 표현된 플라워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에 여백을 주는 올오버 레이아웃(Allover LayOut)으로 모티브와 스탬핑(Stamping), 또는 핸드페인팅 등의 회화적 기법(그림 18)이 제시 되었다.

삼성디자인넷에서는 레이스가 신선한 텍스처와 다양한 소재 활용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고 입

〈표 6〉 2017 S/S 플로럴 트렌드

퍼스트뷰코리아		삼성디자인넷	
			
〈그림 21〉 플로럴트렌드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2〉 플로럴트렌드 (출처: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3〉 플로럴트렌드 (출처: www.samsungdesign.net)	〈그림 24〉 플로럴트렌드 (출처: www.samsungdesign.net)

〈표 7〉 2012S/S 트렌드가 반영된 컬렉션 작품

			
〈그림 25〉 DriesVan Noten, 2012s/s (출처: http://runway.vogue.co.kr)	〈그림 26〉 Rodarte, 2012s/s (출처: http://runway.vogue.co.kr)	〈그림 27〉 Valentino, 2012s/s (출처: http://runway.vogue.co.kr)	〈그림 28〉 Christopher Kane, 2012s/s (출처: http://runway.vogue.co.kr)

체적인 표면 처리와 메탈릭 오버프린트 및 자수 기법과 같이 색다른 소재 혼합, 기존의 정적인 스타일에서 변형해 크로셰(Crochet), 자수와 모티브를 제안(그림 19), 70년대 레트로 무드와 추상 효과의 플로럴 프린트, 대담한 컬러 콤비네이션과 단순화된 형태의 플로럴 프린트로 생생함을 강조, 바랜 듯한 색감, 텍스처와 패턴의 오버레이, 수채화 효과, 커팅 등으로 입체감을 더한 패턴이 제시 되었다(그림 20).

2017 S/S 퍼스트뷰코리아에서 제안한 플로럴패턴은 동양적인 분위기의 새 또는 나비, 드래곤 등의 모티브(그림 21)와, 월페이퍼에 바랜 듯하고 찢어 붙인 듯한 느낌의 핸드크래프트적 기법을 가미하여 추상적인 뉘앙스와 낭만적인 감성을 더해 새로움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그림 22)

이며, 삼성디자인넷에서는 빈티지 화이트와 소프트 파스텔로 구상한 오픈워크 감각의 레이스, 섬세한 네트 조직에 대담한 모티브를 수놓아 네트와 레이스의 경계(그림 23)를 흐릿하게 표현하고, 월페이퍼, 소파 등 홈 인테리어에서 영감을 받은 플로럴 프린트, 윌리엄 모리스의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패턴은 손으로 그린 듯한 라인 기법, 수공예 감각의 터치를 강조한 풍부하고 자유로운 구성(그림 24)이 특징이다.

3.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플로럴패턴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 중에서 트렌드가 반영된 작품들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2013S/S 트렌드가 반영된 컬렉션 작품

<p>〈그림 29〉 Gucci, 2013s/s (출처: http://runway.vogue.co.kr)</p>	<p>〈그림 30〉 prada, 2013s/s (출처: http://runway.vogue.co.kr)</p>	<p>〈그림 31〉 Marc Jacobs, 2013s/s (출처: http://runway.vogue.co.kr)</p>	<p>〈그림 32〉 chanel, 2013s/s (출처: http://runway.vogue.co.kr)</p>

〈표 9〉 2014S/S 트렌드가 반영된 컬렉션 작품

<p>〈그림 33〉 DriesVan Noten, 2014s/s (출처: http://runway.vogue.co.kr)</p>	<p>〈그림 34〉 Marni, 2014s/s (출처: http://runway.vogue.co.kr)</p>	<p>〈그림 35〉 AnnaSui, 2014s/s (출처: http://runway.vogue.co.kr)</p>	<p>〈그림 36〉 AnnaSui, 2014s/s (출처: http://runway.vogue.co.kr)</p>

2012S/S 패션컬렉션에서 DriesVan Noten은 바위의 표면 느낌이 나게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표현, Valentino는 컬러링이 없는 바랜듯한 여백에 부케 패턴으로 표현했고 Christopher Kane은 흰색의 큰 모티브(Motive) 꽃을 다른 톤의 꽃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중후하고 차분한 플로럴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2013S/S 패션컬렉션에서 살펴보면 Gucci는 큰

모티브를 서로 중첩시켜 여성스럽고 우아한 플로럴패턴, Prada는 여백 없이 가득 찬 둥근 플로럴 패턴, Marc Jacobs와 Chanel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플로럴패턴을 사용되었다

2014S/S 패션컬렉션에서 Dries Van Noten과 Marni는 과감한 크기와 바탕색과 강하게 대비되는 플로럴패턴으로 컬렉션에 참여했고 Anna Sui는 에스닉스타일의 플로럴패턴과 레이스로 여

〈표 10〉 2015S/S 트렌드가 반영된 컬렉션 작품

			
〈그림 37〉 Gucci, 2015s/s (출처: http://runway.vogue.co.kr)	〈그림 38〉 Michael Kors, 2015s/s (출처: http://runway.vogue.co.kr)	〈그림 39〉 Marni, 2015s/s (출처: http://runway.vogue.co.kr)	〈그림 40〉 Valentino, 2015s/s (출처: http://runway.vogue.co.kr)

〈표 11〉 2016S/S 트렌드가 반영된 컬렉션 작품

			
〈그림 41〉 Gucci, 2016s/s (출처: http://runway.vogue.co.kr)	〈그림 42〉 Marc Jacobs, 2016s/s (출처: http://runway.vogue.co.kr)	〈그림 43〉 Givenchy, 2016s/s (출처: http://runway.vogue.co.kr)	〈그림 44〉 Anna Sui 2016s/s (출처: http://runway.vogue.co.kr)

성스러움을 표현했다.

2015S/S 패션컬렉션에서 Gucci는 동양적인 클래식스타일의 플라워패턴, Michael Kors과 Marni는 큰 모티브의 플로럴패턴을 핸드페인팅 느낌의 패션을 발표했고 Valentino는 하와이스타일의 플로럴패턴을 배열하여 강한 색채로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2016S/S 패션컬렉션에는 2015S/S와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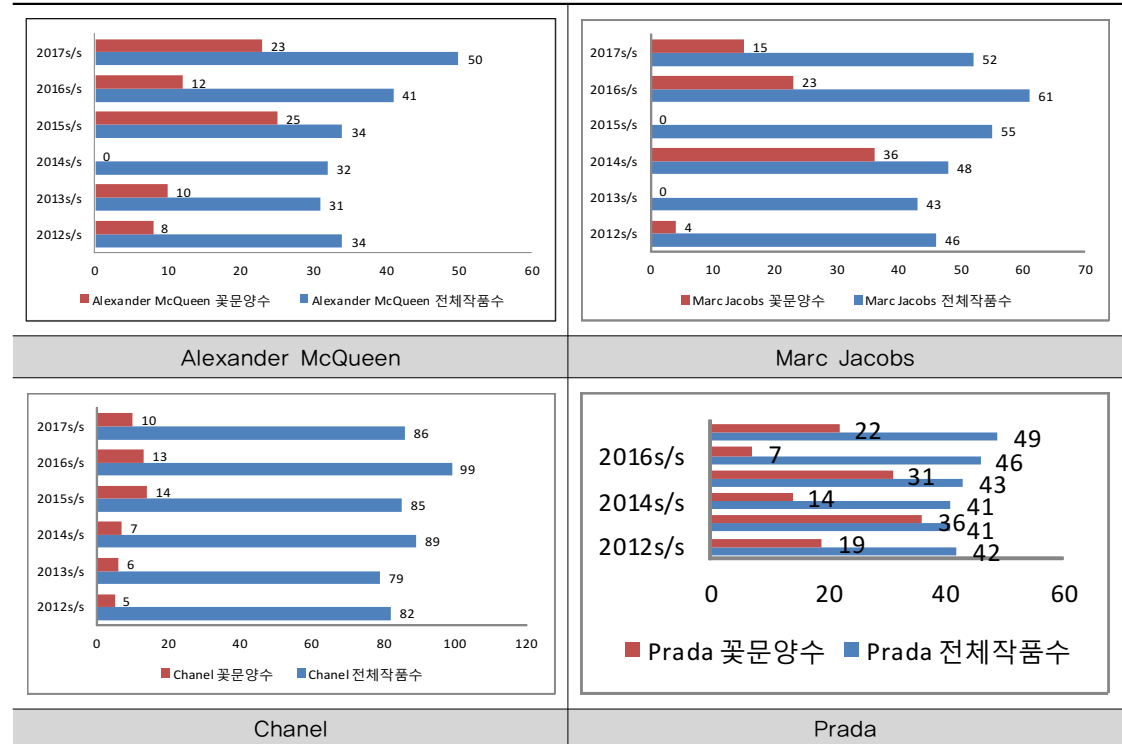
오리엔탈무드의 플라워패턴을 사용한 Gucci의 작품과 간결한 선을 사용해 명확하고 간결한 모티브를 표현한 Marc Jacobs의 작품, 레이스를 많이 사용하는 Givenchy의 레이스 패턴, Anna Sui의 대담하고 독특한 플로럴패턴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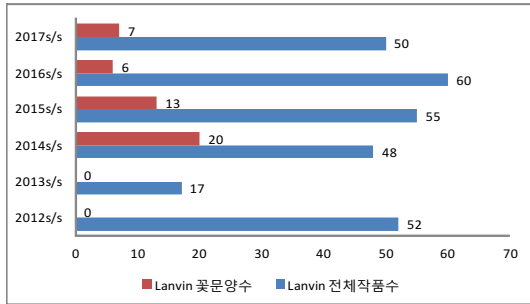
2017S/S 패션컬렉션에서는 Gucci의 동양적인 분위기의 화려하고 강렬한 이미지의 플로럴 패턴, 찢어 붙인듯한 느낌의 핸드크래프트적인 플

〈표 12〉 2017S/S 트렌드가 반영된 컬렉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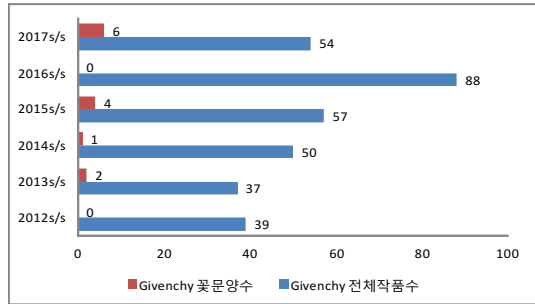
<p>〈그림 45〉 Gucci, 2017s/s (출처: http://runway.vogue.co.kr)</p>	<p>〈그림 46〉 Michael Kors 2017s/s (출처: http://runway.vogue.co.kr)</p>	<p>〈그림 47〉 Alexander McQueen 2017s/s (출처: http://runway.vogue.co.kr)</p>	<p>〈그림 48〉 Balenciaga 2017s/s (출처: http://runway.vogue.co.kr)</p>

〈표 13〉 시즌별 16개 브랜드 플로럴패턴 출현 빈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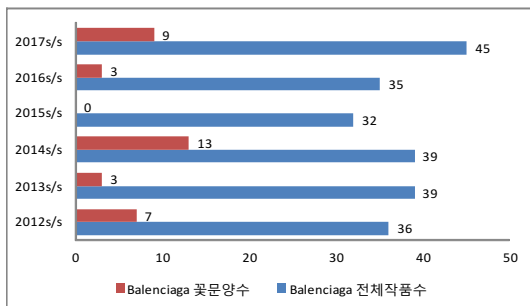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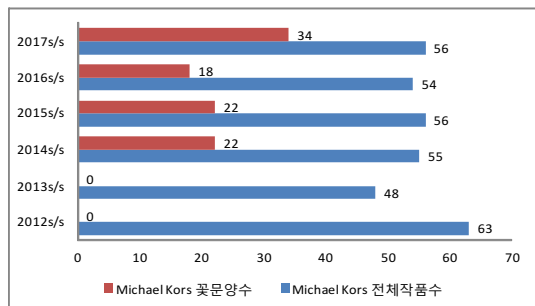
Lanv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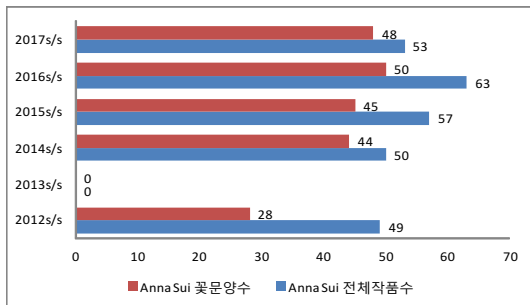
Givenc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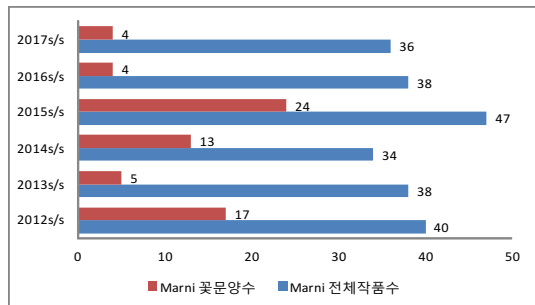
Balencia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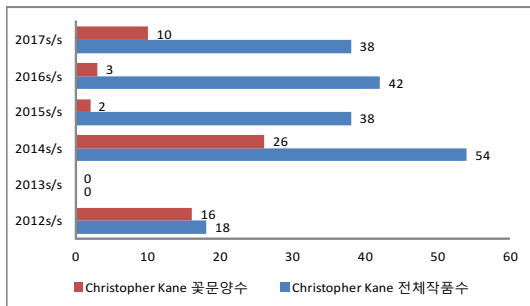
Michael K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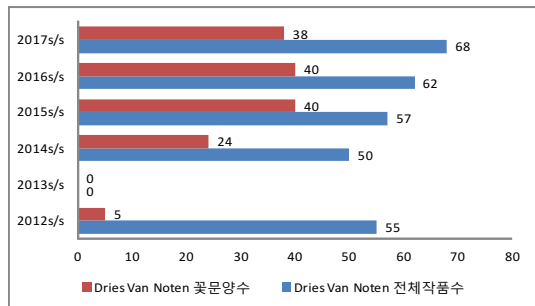
Anna S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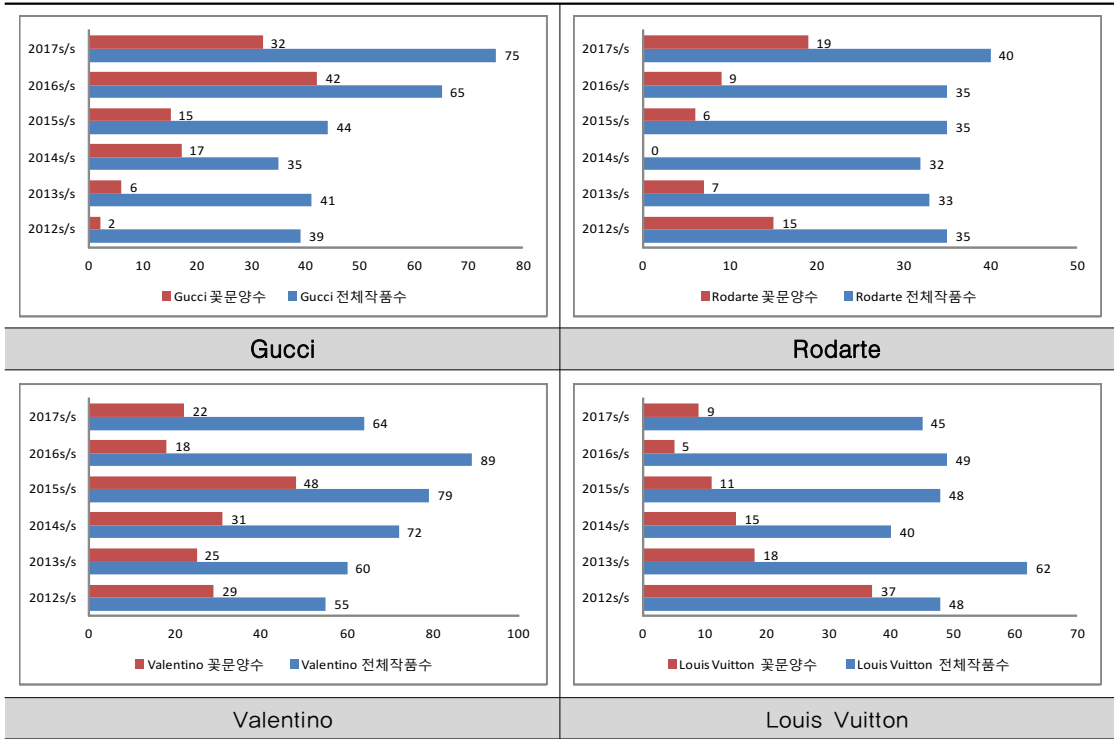
Marni



Christopher Kane



Dries Van Noten



로럴패턴을 가득 채워 발표한 Michael Kors, 해마와 매치하여 섬세하고 아름다운 레이스를 사용한 Alexander McQueen, Balenciaga는 만개한 꽃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플로럴패턴을 검정색을 배색하여 원색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였다.

2. 플로럴 패턴의 컬렉션 활용 분석

2012 S/S~2017S/S 시즌을 중심으로 파리·밀라노·뉴욕·런던의 세계4대 컬렉션의 작품을 보그지를 통해 모두 조사한 결과 16개의 브랜드가 컬렉션에 발표한 총 작품은 4,681개의 작품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플라워패턴은 1,454로 31%의 출현 빈도율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13>은 2012S/S~2017S/S의 기간 중 각각의 시즌별로 16개 브랜드의 전체 패턴 작품수와 플로럴패턴 수의 사용빈도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2012S/S~2017S/S 기간 동안 6번의 컬렉션에 나온 총 작품 중에서 브랜드별 전체 문양 수를 플

로럴 패턴이 나타난 작품 수로 백분율 계산을 하여 반올림 한 수치를 출현 빈도율(<표 14>로 정리하였다.

위의 <표 14>에서 나타나듯이 2012S/S~2017S/S까지 컬렉션에 나온 총 작품 중에서 플로럴패턴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패턴을 가장 많이 사용한 Anna Sui는 무려 79%의 비중을 차지하며 매 시즌마다 한가지의 정해진 패턴만을 쓰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플로럴패턴을 사용하였다. Dries Van Noten도 플라워패턴을 50%사용하였는데 전 시즌 모두에서 커다란 플라워패턴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Prada는 전체 패턴 중 플로럴패턴을 49%를 사용하였고 특징은 간결한 단독 형태의 패턴과 자수장식, 그리고 플라워 장식물을 부착하여 강조하는 것도 있었다. Valentino는 41%의 빈도율로 고급스럽고 화려한 문양이 특징으로 특히 번아웃, 레이저컷팅, 크로세, 자수, 레이스 등의 다양한 텍스타일기법을 활용하였다. Gucci는 38%의 빈도율로 2012~2014까지는 추상적이고 커다란 패턴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5~2017 시즌에는 패턴이 화려해지고 섬세해

〈표 14〉 2012S/S~2017S/S 시즌 중 브랜드별 플로럴패턴의 사용 빈도율

브랜드	총작품수	총 사용 수량	플라워문양 빈도율
Anna Sui	272	215	79%
Dries Van Noten	292	147	50%
Prada	262	129	49%
Valentino	419	173	41%
Gucci	299	114	38%
Alexander McQueen	222	78	35%
Louis Vuitton	292	95	33%
Christopher Kane	190	57	30%
Marni	233	67	29%
Michael Kors	332	96	29%
Rodarte	210	56	27%
Marc Jacobs	305	78	26%
Lanvin	282	46	16%
Balenciaga	226	35	15%
Chanel	520	55	11%
Givenchy	325	13	4%

〈표 15〉 2012S/S~2017S/S 중 각 시즌별 작품과 플로럴패턴 작품의 총 빈도율

시즌	전체 작품 수	플로럴패턴 작품	빈도율
2012s/s	733	192	26%
2013s/s	569	118	21%
2014s/s	769	283	37%
2015s/s	822	300	36%
2016s/s	927	253	27%
2017s/s	861	308	36%

〈표 16〉 퍼스트뷰코리아, 삼성디자인넷의 예측이 컬렉션작품에 반영된 빈도율

디자이너	빈도율	2012s/s	2013s/s	2014s/s	2015s/s	2016s/s	2017s/s
Alexander McQueen	퍼스트뷰코리아	1	0	0	1	1	2
	삼성디자인넷	1	0	0	2	2	2
Marc Jacobs	퍼스트뷰코리아	0	0	2	0	1	2
	삼성디자인넷	0	0	2	0	1	2
Chanel	퍼스트뷰코리아	1	2	1	0	2	1
	삼성디자인넷	0	0	1	2	1	1
Prada	퍼스트뷰코리아	1	2	1	2	0	1
	삼성디자인넷	1	1	0	1	0	2
Lanvin	퍼스트뷰코리아	1	0	1	2	0	0
	삼성디자인넷	0	0	1	1	1	2
Givenchy	퍼스트뷰코리아	0	0	0	0	0	1
	삼성디자인넷	0	0	1	0	1	2
Balenciaga	퍼스트뷰코리아	0	1	1	0	0	2
	삼성디자인넷	1	0	1	0	1	2

디자이너	빈도율	2012s/s	2013s/s	2014s/s	2015s/s	2016s/s	2017s/s
Michael Kors	퍼스트뷰코리아	0	0	1	2	1	2
	삼성디자인넷	0	0	2	1	2	1
Anna Sui	퍼스트뷰코리아	1	1	2	2	2	2
	삼성디자인넷	2	1	2	2	2	2
Marni	퍼스트뷰코리아	1	1	2	2	0	0
	삼성디자인넷	2	1	2	2	1	0
Christopher Kane	퍼스트뷰코리아	1	0	2	0	0	1
	삼성디자인넷	2	0	1	0	2	1
Dries Van Noten	퍼스트뷰코리아	2	0	2	1	1	2
	삼성디자인넷	1	1	1	2	1	2
Gucci	퍼스트뷰코리아	0	0	1	2	2	2
	삼성디자인넷	0	1	0	1	1	1
Rodarte	퍼스트뷰코리아	2	0	0	0	0	1
	삼성디자인넷	1	0	0	0	1	1
Valentino	퍼스트뷰코리아	2	1	1	1	0	1
	삼성디자인넷	2	1	1	2	1	2
Louis Vuitton	퍼스트뷰코리아	0	0	0	1	0	1
	삼성디자인넷	0	0	0	1	0	1

지면서 플로럴패턴의 종류, 자수의 기법 등에서 동양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났다. Alexander McQueen은 핸드페인팅, 레이저컷팅, 크로세, 자수, 레이스 등의 기법을 사용한 화려한 패턴이 특징이다. Marni는 Dries Van Noten과 비슷하게 커다란 플라워패턴이 전 시즌 고르게 나타나며 작고 귀여운 형태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그 밖의 브랜드들도 독특하고 다양한 플라워패턴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4%의 빈도율을 보이는 Givenchy는 주로 레이스를 많이 사용하였다.

각 시즌별 전체작품과 플로럴패턴 작품의 비율을 <표 15>으로 살펴보면 2014S/S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2013S/S가 21%로 가장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패션컬렉션의 트렌드 반영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는 플로럴패턴의 분류 때와 마찬가지로 연구자 2인의 패션디자인 전문인 2인이 함께 참여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분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의 분석결과 2012S/S~2017S/S 시즌의 제안한 예측이 컬렉션에 반영한 비율은 삼성디자인넷 52%, 퍼스트뷰코리아 48%로 나타났으며 예상했던 것보다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플로럴패턴은 텍스타일디자인의 표현기법과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으며 생명력이 내재된 꽃은 인간에게 활력과 정신적 안정을 느끼게 하여 예술과 생활전반에 중요하게 활용되어 왔다. 특히 여성 취향의 꽃은 여성복의 패턴 소재로 사회적 변화와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사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4대 컬렉션(파리·밀라노·뉴욕·런던) S/S 시즌의 여성복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플로럴패턴의 변화와 패션트렌드 정보지의 플로럴패턴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2012S/S~2017S/S까지 6년 동안 세계 4대 패션컬렉션에 거의 매년 참석한 16개의 브랜드가 발표한 총 4,681개의 작품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방법은 패션 전문서적과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였다.

패션트렌드 정보는 퍼스트뷰코리아(Firstview korea), 삼성디자인넷(Samsungdesign.net)의 그래픽트렌드에서 제안한 정보를 활용하였다.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플로럴패턴 분석 및 패션트렌드 반영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S/S~2017S/S 파리·밀란·뉴욕·런던 세계4대컬렉션의 작품을 퍼스트뷰코리아, 삼성디자인넷과 패션컬렉션잡지 보그(<http://www.vogue.co.kr>) 를 통해 모두 조사한 결과, 16개의 브랜드에서 컬렉션에 발표한 총 작품은 4,681개의 작품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플로럴패턴은 1,454작품으로 31%의 빈도율로 출현되었다.

둘째, 16개의 브랜드에서 사용한 2012~2017S/S 각 시즌별 전체작품과 플로럴문양 작품의 비중 살펴보면 2012년S/S시즌은 26%, 2013년S/S시즌은 21%, 2014년S/S시즌은 37% 2015년S/S시즌은 36%, 2016년S/S시즌은 27%, 2017년S/S시즌은 36%의 빈도율을 보였다.

셋째, 2012S/S~2017S/S 시즌의 6년 동안 시즌별로 16개의 브랜드별로 사용된 플로럴패턴의 사용 빈도율은 다음과 같다.

Anna Sui 272개 작품 중 215로 79%, Dries Van Noten 292개 중 147개로 50%, Prada 262개 중 129개인 49%, Valentino 419개 중 173개로 41%, Gucci 299개중 114개로 38%, Alexander McQueen 222개중 78개로 35%, Louis Vuitton 291중 95로 33%, Christopher Kane 190개중 57개로 30%, Marni 233개중 67개로 29%, Michael Kors 332개 중 96개로 29%, Rodarte 210개중 56개로 27%, Marc Jacobs는 305개중 78개로 26%, Lanvin 282개 중 46개로 16%, Balenciaga 226개중 35개로 15%, Chanel 520개중 55개로 11% Givench 325개중 13개로 4%의 빈도율을 나타냈다.

넷째, 퍼스트뷰코리아, 삼성디자인넷의 패션트렌드 제안이 2012S/S~2017S/S 컬렉션에 나타난 플로럴패턴의 반영률을 분석하기 위해 매 시즌마다 제안된 그래픽 트렌드를 기준으로 하여 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2012S/S ~2017S/S시즌 동안 컬렉션 반영 비율은 삼성디자인넷 52%, 퍼스트뷰코리아 48%로 4%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전체적인 빈도율의 평균은 50%로 높게 나타났다.

그래픽트렌드의 플로럴패턴 반영 비율이 컬렉션에 50%의 높은 반영 비율의 결과를 보인 것을 볼 때 컬렉션을 준비하는 디자이너와 국내의 패션산업계에서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패션트렌드의 예측은 현대 사회현상과 문화현상, 예술의 흐름, 소비자 심리 등 시대적 조류를 분석한 산물이다.

본 연구는 플로럴패턴에 한정하여 그래픽패턴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한점이 있지만 최근 6년간 국내 패션정보기획사인 퍼스트뷰코리아와 삼성디자인넷에서 제시한 패션트렌드의 반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국내 패션업계가 패션트렌드 정보사의 트렌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타당성 여부를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대상을 플로럴패턴에 한정시키지 않고 전반적인 요인들을 분석하여 침체된 패션산업에 유익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김소현. (2013). *플로럴 패턴디자인의 감성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은숙. (1982). *꽃의 상징적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애, 조영아. (2004). 국내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트렌드 분석-2000~2004 국내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0(2), 39~47.
- 이수철, 김소현. (2013). 플로럴 패턴디자인을 활용한 여성 어패럴 사례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2), 376-388.
- 이인성. (2003). 패션정보지의 디자인트렌드 예측과 소비자의 수용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0), 185~198.
- 윤정. (2003). *패션트렌드 디자인에 나타난 꽃문양의 특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심. (2012). *패션 소재 트렌드 분석과 수용에 관한 연구 - 2007 S/S~2010 S/S 국내외 컬렉션을 중심으로 -*.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승영. (2009). *패션 트렌드 정보지에 나타난 니트소재분석 :2002~2007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양현. (2017). *2017년 패션트렌드에 따른 네일 디자인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리. (2003). *패션 트렌드의 의미구성과 이데올로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폴 뷁용, 윤철규역. (1994). *아르누보*. 서울. 열화당.

트렌드, 네이버 어학사전, 자료검색일, 2016, 11월 17일. 자료출처: <http://kin.naver.com/openkr/detail.nhn?docId=5902>.

컨버세이션얼(conversational): 꽃을 제외한 자연물이나 정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프린트.

파리·밀라노·뉴욕·런던의 2012 S/S~ 2017S/S 컬렉션. 보그. 자료검색일 2016, 9, 2 ~ 2017, 4, 27. 자료출처: www.appnews.co.kr, www.firstviewkorea.com, (<http://runway.vogue.co.kr/>). www.samsungdesign.net.

gap press. 2011~2016. IN FASHION. 2011~2016.

firstview.korea, 출처: 패션채널.2007년, 4월호. p245. <http://www.fashionchannel.co.kr/main/bbs.php?table=papernews&query>

samsungdesign.net. 출처: <http://samsungfashion.tistory.com/332>